

< 해바라기 > 5566 여성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하용조 목사 메시지 - 1막

‘엄마의 꿈’

여러분이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다 지나가도 여러분의 인생에 남아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5세에서 66세 여성을 조사하며 저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남편, 자녀, 손자 손녀 이야기 뿐 자기 인생에서 자기 이야기가 빠져있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지 자기 이름이 없이 해바라기처럼 자식과 남편만 바라보며 상처 입은 가슴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운 것이 바로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

제 생애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신 분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평양에서 예수를 믿는 집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한 청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불같은 분이셨습니다. 성급하시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정 반대셨습니다. 물 같이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송을 불러주시고 구역예배에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으며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셨다고 새삼 느낍니다. 제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오셨기에 저를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늘 고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공부를 배운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드라마를 보시는 것 외에 평생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으셨습니다. 책을 읽으신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저희 어머니처럼 지혜로운 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보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피난해서 만난 전쟁고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달동네, 산동네를 다니며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 정신이상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참 많이 돌보셨습니다. 가방에 성경책과 라면 몇 개 싸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어머니 일생의 과업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산을 남겨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준 것이 있다면 자녀 전부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유산, 더 큰 복이 있을까’ 돌이켜 생각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니던 시골교회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제게 갖다

주는 것을 저희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는 당신이 다니는 시골교회 목사님께 그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아이가 정신이상이었는데 밤잠을 안자고 그 아이를 돌보시던 어머니를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부분이 어머니의 손입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자 손 같지 않습니다. 매듭이 크고 일꾼 손 같았습니다. 항상 노티떡과 지지미를 만들어 교인들을 먹이셨습니다. 1주일 내내 교인들의 발걸음이 떨어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평생 보며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눈을 뜨면 항상 부모님이 안계셨습니다. 새벽기도회에 가신 것입니다. 새벽 4시면 교회에 가시고, 돌아오셔서 집안 마당을 쓸고 저를 깨워 운동을 시키셨습니다. 저희는 가정예배를 아침, 저녁 하루에 두 번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은혜를 사모하셔서 언제나 제일 교회 앞에 앉으셨고 아이들을 무척 좋아해서 나이가 육칠십이 될 때까지 교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꿈

어머니께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오랜 지금 저희 어머니 본인 꿈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떤 꿈을 꾸셨을까 생각해 보니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다 목회자나 교회에서 좋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을 제일 바라셨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바라셨던 것은 저희 아버지의 건강이셨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쓰러지셨고 말씀도 못하시고 반신불수로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밥 세끼 떠먹이시고 대소변 받아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또 다른 꿈은 현금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없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산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남편과 자식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다 지나가도 여러분의 인생에 남아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라도 그 분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을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여태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앞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2천년동안 여러분을 기다려왔고 수없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꿈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 등 돌려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듭니다.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만해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목표, 새로운 꿈, 새로운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사랑하는 자녀지만 여러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제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남편을 복주고 사랑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가 햇볕을 등지고 지하실에 있었지만 지하실에서 나오면 찬란한 태양을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다면 놀라운 일이 오늘부터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용조 목사 메시지 - 2막

‘엄마의 사랑’

가슴 저리고 무조건적인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믿음·희망·사랑 비타민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우리는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나고 고향처럼 편안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 사랑의 닳은꼴 엄마 사랑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닳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식에게 향하는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의 한 치과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분의 16살 된 아들이 속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심장치가 없었습니다. 배를 열어보니 암이 퍼져있었습니다. 살 수가 없다고 함

니다. 그 분이 제 방에 와서 우는데 들어올 때 울고, 앉을 때 울고, 나가서 울고, 일주일 후에도 울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하나님처럼 붙들고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자기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합니다. 이제 살 확률은 10%라고 하는데 아들을 살리려고 며칠 전 그 아이와 휴스턴으로 떠났습니다. 이 치과의사처럼 부모의 사랑은 자꾸만 주고 싶습니다.

왜 엄마의 사랑은 가슴을 저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사랑에는 조건이 있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공부 못해도, 장애가 있어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제공하는 눈에 보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타민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음식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타민이 없으면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균형을 잃고 맙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면 우리 육체가 아픈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세 가지 비타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비타민 세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타민은 믿음 비타민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후 영원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땅에서 행복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비타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비타민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향한 꿈,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꿈도 꿈입니다.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천국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꿈을 갖기 바랍니다.

셋째 비타민은 사랑 비타민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폐허와 같습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인생에 사랑이 없으면 무덤과 같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제일 좋은 화장법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사랑,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당신을 폐허와 죽음, 절망에서 건져냅니다. 사랑받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대신에 미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과 분노를 이 시간에 쓰레기 버리듯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이라는 비타민, 희망의 비타민, 믿음의 비타민! 여러분, 이 영혼의 세 가지 비타민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주를 믿는 네 가지 방법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꿈을 갖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억하지 못하면 불효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했을 때 듣고 거부감이 없으셨다면 그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한번 믿어볼까?”라는 맘이 든다면 그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택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라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라 내 입을 만드신 분이 말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처럼 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 입을 만드신 분이 말하는 개념이 없으시다면 내 입을 어떻게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쉬운 방법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카드에 싸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셋째 방법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반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넷째 방법은 반응하고, 요청하는 방법인 기도입니다. 상대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독백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것은 대화입니다. 그 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말씀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외로웠고 피곤했고 좌절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싶었지만 늘 방황했고 희망을 갖고 싶었지만 좌절했습니다. 사랑하고 싶었지만 분노와 미움이 앞섰습니다.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허물과 죄인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싶고 희망의 삶을 살고 싶고 사랑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의 어리석음을 용서해주십시오. 조건 없는 하나님 사랑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생 사랑을 주고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분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멋있고 아름답게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용조 목사 메시지 - 3막

‘엄마의 이름’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십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땅의 이름이 아니라 죽은 후 천국에서 존재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받아 마땅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엄마가 그랬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엄마는 우리 마음의 고향이고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오늘 두 가지 비타민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라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쁨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슬픔과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이름

오늘은 엄마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이름을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자기 이름이 아닌 누구의 엄마로 불렸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신기하게도 자신의 이름이 자기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도 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가 그 이름처럼 살기를 바라며 지어 주십니다.

성경에도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이 ‘땅’입니다. ‘이브’는 ‘생명을 주는 산 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큰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래’는 ‘큰어머니’라는 뜻인데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에도 이처럼 각각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가 왜 그 이름을 붙여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여러분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중요성을 담은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창 12:1~2)”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복의 이름이 되길, 그 이름이 창대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구원,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는 순간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존귀해서 부르지 못하고 '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모음으로만 발음했습니다. 그 분은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 모음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씁니다. 엘 로힘(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롬(신비로운 하나님), 여호와 로피(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목자이신 하나님)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영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길 - 오직 하나님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어야 하고 동시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런 분이 인류역사상 딱 한 분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갈등하게 됩니다.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진리, 핵심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가 하나님이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인간이 되셨고,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빌립보서 2:5~9)”

예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인 까닭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여자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은 뛰어난 이름, 영원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

를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립보서 2:10~11)”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존재할 이름

성경을 보면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이사야 49:16)”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땅의 이름이 아니라 죽은 후 천국에서 존재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겠습니까. 엄마 이름은 그리운 이름입니다. 내가 외롭고 지칠 때 엄마의 이름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해바라기의 마지막 밤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